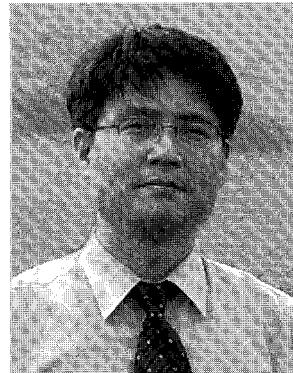


## 육계 사료요구율 개선 현황

# 사료요구율 개선은 혁신이 필요한 시기

조 현 성 (주)하림 사육사업부장



“1989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나의 미래가 양계산업과 설레이는 첫 만남이었다.”

그 당시 본격적으로 완전통합경영 (complete intergration)의 모델이 실험대에 올라 산업의 구조가 격변하고, 사육의 형태, 농가의 의식변화까지 한국의 양계산업은 급물살을 타던 시기였으며 우리 양계산업은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 왔으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표1은 본인이 양계산업에 첫발을 내딛은 지금부터 15년전 1989년 11월 17일 당시 “수입 개방시 대를 맞이하는 양계인의 자세”란 주제로 오봉국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중 일부다.

1955년 자급 자족하며 방사하여 사육하던 시절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정도로 2004년을 맞은 우리 양계인들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다.

하지만 그 당시 고민하던 문제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6단계를 가고있다고 판단되며, 계열화 체계가 완성되어지고 산업 부문간, 지역간 이해관계 등에 의한 M/A가 가속화되며, 시설은 규모화, 집약화, 자동화를 통하여 무인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등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생산성과 관련한 풀지 못한 과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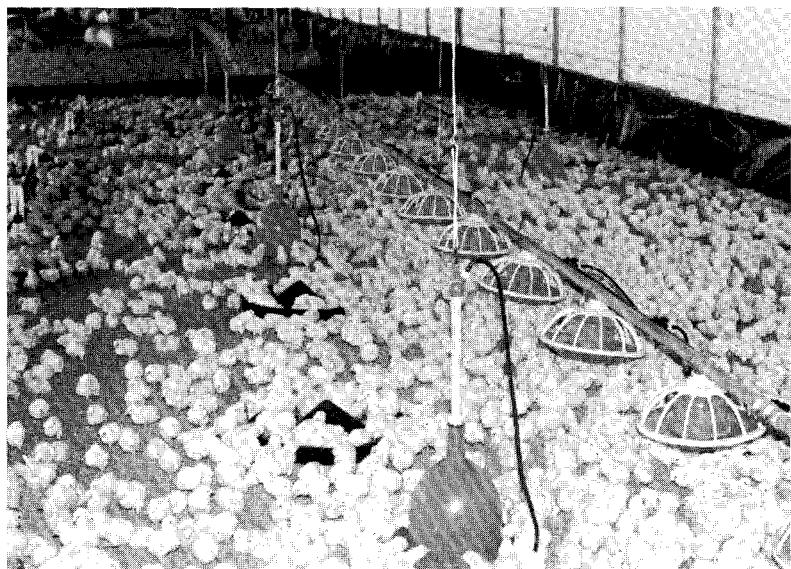
집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세계 양계산업은 급속도로 발전되어지고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1989년 그 당시 계열 사들은 출하체중 1.5kg 기준 사료요구율 2.0을 기본 계약을 통해 농가와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었다.

항시 농가와 병아리 품

질 및 사료품질 문제가 논쟁이 되었는데 “닭이 먼저인가 종란이 문제인가(?)”에 “갑론을박” 혼란 그 자체였다



**표1. 시대변천에 따른 양계업 발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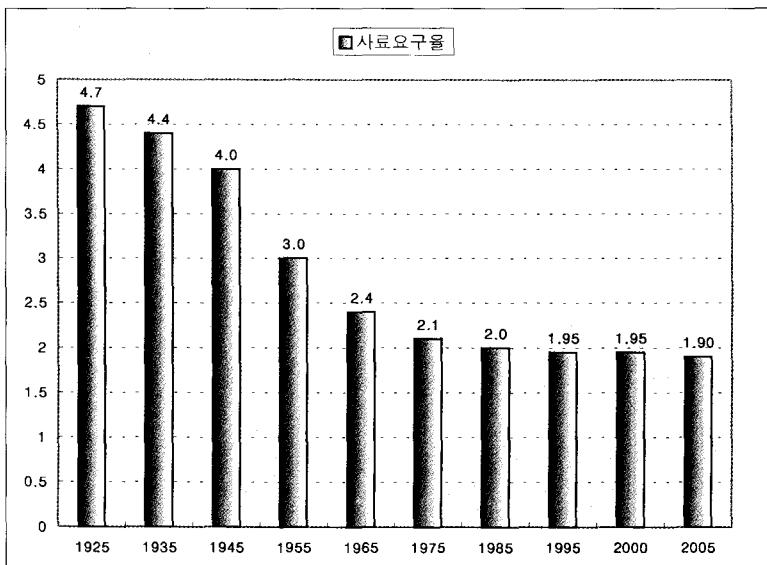
| 발달과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경영형태 | (1955년~) | (1955년~1964년) | (1975년~1974년) | (1975년~1980년) | (1990년~2000년) |
|      | 방사양계     | 혼합경영          | 채란, 육계혼합경영    | 기업 양계         | 통합경영 체계       |
|      | 자급자족     | 부업양계          | 전업 양계         | 육계 독립 경영      | 계열화 체계화립      |
|      |          | 일부판매          | 사료산업 분리       | 관련사업 기업화      |               |
|      |          | 인공부화          |               |               |               |
| 관리형태 |          | 감별사육          |               |               |               |
|      | 모계 부화    | 병아리 구입        | 배합사료 구매       | 도계장 처리        | 자동화체계         |
|      | 육추       | 육추            | 케이지 관리        | 계란처리 공장       | 일괄생산 체계       |
| 노동력  | 자급사료     |               |               | 육계사료 생산       |               |
|      | 부차적 농업   | 부업적 노동        | 전업 노동         | 관리자 분리        | 관리자           |
| 장소   | 전국적      | 전국적 산재        | 도시근교          | 특정지역          | 인건비 저렴지역      |
|      | 방사양계     | 평사            | 사내사육          | 반 개방식         | 무창자동화         |
|      | 물통       | 운동장           | 케이지사육         | 무창계사          | 사양관리 메뉴얼화     |
|      |          | 물통, 모이통       | 물통, 급이통       | 제분, 사료자동화     |               |
| 계분   | 자급       | 비료로 이용        | 파수            | 가공 처리         | 지출            |
|      |          |               | 채소용비료         |               |               |
| 기타   |          | 업체부란기 가동      | 상업용 종계수입      | 계란GP센터        | 컴퓨터 활용        |
|      |          |               | 후라이드 치킨       | 닭고기부분육시장      | 수입 급증         |
|      |          |               | 슈퍼마켓          | 가공품 출현        |               |

자료 : 오봉국(1989)

### 창간특집Ⅲ · 닭 개량 어디까지 왔나?

표2. 미국의 과거 75년간의 육계 사육성적 현황

| 연도(년) | 출하일령 | 출하체중(kg) | 사료요구율 | 폐사율(%) |
|-------|------|----------|-------|--------|
| 1925  | 112  | 1.13     | 4.7   | 18     |
| 1935  | 98   | 1.29     | 4.4   | 14     |
| 1945  | 84   | 1.37     | 4.0   | 10     |
| 1955  | 70   | 1.39     | 3.0   | 7      |
| 1965  | 63   | 1.57     | 2.4   | 6      |
| 1975  | 56   | 1.70     | 2.1   | 5      |
| 1985  | 49   | 1.90     | 2.0   | 5      |
| 1995  | 47   | 2.12     | 1.95  | 5      |
| 2000  | 46   | 2.27     | 1.95  | 5      |
| 2005  | 45   | 2.33     | 1.90  | 5      |



오고 있었으며, 무엇이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주)하림의 사료요구율의 경향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사료 요구율 개선을 막는 근본적 이유는 농가와 계열사간 계약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준 요구율에 따라 농가 성과급이 주어지므로 계열사는 적정 사료요구율을 구현하였다. 하림은 '99년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함으로 사료품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급격한 개선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2004년 현재 계열사 평균 사료요구율 1.85라 가정한다면 15년간 0.15밖에 개선이 없었다. 년간 평균 0.01씩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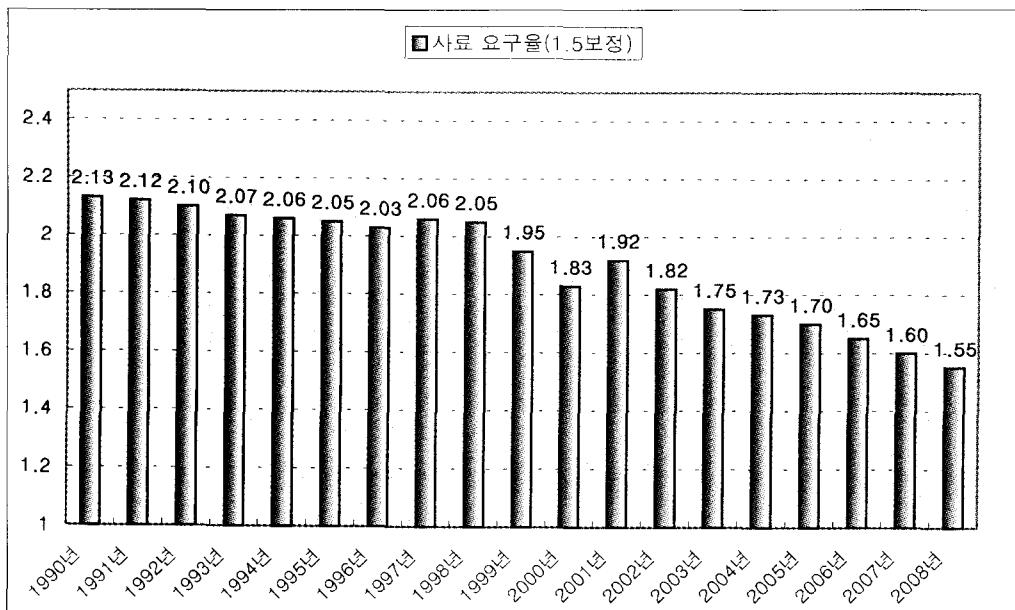
미국의 예를 들어 보자. 표2에서 보듯이 미국의 사육 일령은 80년 사이 출하체중은 1.2kg커지고 사육일령은 67일 단축되었으며 사료요구율은 계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금년 초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양계산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모든 관리는 교과서적인 관리가 되고 있었고, 기후 또한 온화하여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뉴질랜드 농가를 방문할 때 놀란 일은 1.55kg 사육 시 사료요구율 1.5대가 나

표3. 90년대 이후 (주)하림의 사료요구율 변화추이

| 년도  | 90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
| 요구율 | 2.13 | 2.12 | 2.1  | 2.07 | 2.06 | 2.05 | 2.03 | 2.06 | 2.05 |
| 년도  | 99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8년  |
| 요구율 | 1.95 | 1.83 | 1.92 | 1.82 | 1.75 | 1.72 | 1.65 | 1.6  | 1.55 |



이는 '98년 대비' 03년을 살펴보면 무려 6년동안 0.3을 개선하였고 이는 전국 년간 4억수 사육 기준 (0.1개선시 27원/kg 절감효과)  $4\text{억} \times 1.5 \times 81 = 48,600,000,000\text{원}$  사료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답은 간단해졌다. 사료 요구율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입체적으로 해결된다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고질적 질병 문제 개선

둘째 세계적인 육종 트랜드(경향)

셋째 규모화, 표준화된 설비시설 유도(외부기후 극복)

넷째 농가의 의식 개혁과 사양관리 기술

개혁(改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사료 요구율이 국제 경쟁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 해답을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제는 알고 있는 해답을 우리 양계인 전체가 자신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해보자. **양계**